

非行靑少年에 있어서 攻擊性과 不安의 減少에 미치는 主張訓練의 效果

洪 京 子 · 盧 安 寧
(全南大)

요 약

45명의 비행청소년들을 주장훈련집단($n=15$), 토의집단($n=15$), 통제집단($n=15$)에 배정하여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를 알아보았다.

주장훈련집단은 강의, 역할연습 혹은 행동시연, 피이드백, 본보기, 과제물 주기 등으로 구성된 주장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2명의 훈련자에 의해 6주 동안(주 2시간씩) 훈련을 받았으며 토의집단은 6주 동안 2명의 훈련자와 함께 6개의 주제에 관해 토의하였다. 통제집단은 같은 기간동안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다.

6주간의 처치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이나 토의집단보다 공격성과 적의성의 감소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6주간의 처치 후 실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감소되었다. 그러나 실험집단은 6주간의 처치 후에도 불안감소에 있어서 토의집단보다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토의집단은 통제집단보다 6주간의 처치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자기보고형 측정 이외에도 행동적 측정이 더욱 첨가될 것과 피험자의 성격특성에 따라 주장훈련 프로그램의 구성을 각각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되었다.

I. 문제의 제기

오늘날 청소년 비행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하여 각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여러 측면에서 시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절한 지도가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

비행청소년 지도의 한 방안으로 집단상담을 들 수 있다. 적절한 집단상담의 실시를 위해 먼저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비행청소년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심리적 경향을 보면, 일반적

으로 밝거나 명랑하지 못하며 늘 불안하며, 피로와 고민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화를 잘 내고 반항적이며, 의심이 많고 충동적·파괴적 경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가족관계는 원만하지 못하고 가족구성원간에는 적절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극단으로 치달은 경향이 강하다(강상철, 1979; 김봉소 이희도, 김경린, 1974; 김용선, 1966; 박병기 1975; 오점량, 1978).

비행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정서적 장애의 원인으로 비합리적 사고방식들을 들 수 있다. 즉, 남에게 거절당하고 있거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여러 면에서 욕구불만을 느끼며 자아통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 학교, 교우관계에서 자기가 열등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갖고 있으며 질투심, 비판, 흥분, 우울 등의 감정이 많다(박병기, 1975). 즉, 비행청소년들은 정상적인 청소년들에 비해 적절하게 자기표현을 하지 못하며, 불안 및 공격성이 높으며 비합리적 사고방식에 의해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집단상담의 방법들 중에서 주장훈련(assertive training)은 부적절한 정서적 반응을 바꾸거나 비합리적 사고를 없애으로써 부적절한 행동을 수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Lazarus, 197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Alberti와 Emmons(1970)가 주장한 비주장적 행동(non-assertive behavior), 공격적 행동(aggressive behavior)의 대표적인 심리적 변인인 불안과 공격성이 주장훈련 실시후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규명하여 비행청소년들의 상담 및 지도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Pavlov(1927)는 인간의 생물학적 과정을 공식화하면서 흥분력(excitatory force)과 억제력(inhibiting force)의 개념을 소개하였다. Pavlov(1927)는 흥분은 활동을

높이고 새로운 조건반응의 형성을 촉진시키는 뇌과정 (brain process)이고, 역제는 활동과 새로운 학습을 감소시키는 낙담하는 과정 (dampening process)이라고 하였다.

Pavlov 이후 Salter와 Wolpe는 Pavlov의 관점에 근거를 둔 다양한 주장훈련의 개념을 발달시켰다. Salter (1949)는 신경증적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 흥분 및 억제 개념을 사용하였으며, 신경증 환자들은 항상 지나친 억제를 하여 고통받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흥분반응 (excitatory responses)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Wolpe (1958)는 Salter가 사용한 흥분반응이라는 용어는 그 의미가 너무 좁아 흥분반응의 진정한 의미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흥분반응이란 용어 대신에 주장적 반응 (assertive responses)이란 표현을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Wolpe (1958)는 만약 불안을 억제하는 반응이 불안을 유발하는 자극이 있을 때 동시에 유발되면 그 불안 반응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억제되어 불안을 야기하는 자극과 불안 사이의 유대는 약화될 것이라는 상호억제의 원리 (principle of reciprocal inhibition)에 입각한 주장훈련을 시도하여 개념적 진전을 이룩하였다.

주장훈련과 공격성에 관한 연구를 보면 Evans (1970)는 분노 (anger)와 공격성 사이의 관계는 공포 (fear)와 불안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다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불안과 공격성 사이의 유사성이 타당하다면 공격적 행동은 상호억제의 수정된 형태에 따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분노는 불안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자극에 반응하므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보았으며, 공격성은 분노를 감소시키려고 행해진 행동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다. Evans (1970)의 연구에 따라 Evans와 Strangerland (1971)는 2가지 공리, 즉 분노는 특별한 자극에 대한 반응이며, 결과되는 행동에서 공포와 다르다는 것과 공격적 행동은 상호억제 치료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는 공리를 끌어내었다.

Staub (1971)는 라절, 위협 혹은 공격, 지각된 부당성의 반응으로서 생긴 공격성은 비공격적인 방법으로 선행요인을 다루는 기술 (skills)을 증가시킴으로써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Bandura (1973)는 공격성의 수정과 통제의 한 방법으로 참여적 본보기 (participant modeling)에 의한 주장성의 발달을 들었으며, 복종적인 사람은 부당한 대우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사회적 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주장적 반응을 발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주장훈련의 초기 연구는 주로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

으로 비주장적 행동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나, 최근에는 비주장적 행동과 공격적 행동의 변화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청소년의 비주장적 혹은 공격적 행동에 있어 주장훈련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도 최근까지는 거의 없었다 (Hersen & Bellack, 1976; Rich & Schoeder, 1976; DeGiovanni & Epstein, 1978).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인 연구 이외에 불안 및 공격성과 관련된 주장훈련의 효과를 중심으로 주장성과 불안 및 공격성과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자.

Woodpantz (1980)는 교사에 의해 비주장적 혹은 공격적이라고 평가된 청소년들 ($N=90$, 남 43, 여 47, 평균 연령 47세)을 대상으로 주장훈련 및 훈련자의 효과를 연구하였다. 주장훈련을 받은 집단의 결과는 주장적 행동이 구두강의와 통제집단에서 보다 의미있게 향상되었음을 보여주었다.

Lee, Hallberg와 Hassard (1979)는 동료들에 의해 공격적으로 평가된 청소년들 ($N=30$, 남 24, 여 6)을 주장훈련집단, 주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주장적 행동 및 공격적 행동에 있어서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결과는, 주장훈련을 받은 집단은 주장성에 있어서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냈으나 동료의 판단에 의해 평가된 공격성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 하지만 주장훈련 후 자기보고에 의한 공격성의 정도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Hollandsworth와 Cooley (1978)는 주장적 반응이 공격적 반응보다 분노를 덜 야기하고 더 순응 (compliance)을 야기한다는 가설을 증명하기 위하여 성인들 ($N=40$)을 대상으로 녹음된 갈등적인 대인관계 상황에 반응하게 하여 조사하였다. 결과는 한 가지의 행동적 측정과 세 가지의 자기보고 측정에서 공격적 진술보다 주장적 진술이 더 큰 순응을 야기하고 분노를 덜 야기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주장훈련을 통해 주장적 반응을 향상시킴으로써 갈등적인 대인관계 상황에서 불화를 야기치 않고 적절히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제시해 준다.

Gallassi, DeLeo, Gallassi와 Bastien (1974)은 주장성 측정에서 낮은 점수를 얻은 대학생들이 열등감, 타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받는 것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경향이 높으며, 부적 자기평가 및 대인관계에서 불안이 높다고 지적하였다. 반면, 높은 점수를 얻은 학생들은 표현적·자발적이며 적절하게 방어적이고 성취 경향적이며 인간관계에 관심이 높고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nce와 Marziller (1981)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정

소년들을 대상으로 본보기, 역할연습, 피이드백, 사회적 강화(social reinforcement), 과제를 주기(home-work assignment)로 구성된 주장훈련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주의집단이나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대인관계에 있어 친절성(friendliness)이 증가하였으며, 불안은 감소하였다. 또한 자존심(self-esteem), 자기통제(self-control), 사회적 기술 등이 훈련 후에 향상되었다.

Rimm, Hill, Brown과 Stuart(1974)는 부적절한 방법이나 반사회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현한다고 보고한 대학생들($N=13$, 남자), 주장훈련집단($n=7$), 통제집단($n=6$)으로 나누어 8주간 훈련을 실시한 후 두 집단의 변화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결과는 주장성과 마음의 안정을 재는 객관적 측정에서 주장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이 통제집단보다 더 향상되었으며 분노 및 마음의 불안을 재는 주관적 측정에서는 더 큰 개선을 보여주었다.

Hedquist와 Weinhold(1970)의 연구에서는 매우 불안이 높고 사회적인 대인관계에서 비주장적인 대학생들($N=40$)을 사회적 학습집단($n=10$), 행동시연집단($n=10$), 통제집단($n=20$)으로 나누어 언어적인 주장적 반응의 빈도증가를 알아보았다. 결과는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적 학습과 행동시연집단에서 주장적 반응이 의미있게 향상되었으나 두 행동적 방법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

Booraem과 Flowers(1972)는 7명의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12주간 주장훈련을 실시한 결과, 훈련을 받은 환자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인지각의 거리와 자기평가에 의한 불안에 있어 훈련을 받지 않는 환자들보다 의미있게 감소되었다. 정신과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한 Percell, Berwick과 Beigel(1974)의 연구에서도 주장훈련을 받은 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의미있게 적절한 대인관계 행동 및 자기 수용이 증가하였고 불안이 감소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Sarason과 Ganger(1973)는 소년원에 있는 비행청소년들($N=192$)을 본보기집단, 토의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훈련전후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 통제집단에 비해 본보기와 토의집단에서 다양한 생활태도, 자아개념(self-concept) 및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추구조사(follow-up)의 결과 재범율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주장훈련이 본보기를 구성요소로 하는 점에서 볼 때 비행청소년들의 행동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본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연구대상면에서 보면 주장훈련은 청소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제별로는 정서적인 사람들 중에서 비주장적이며, 공격적인 사람들에게 주장성을 향상하기 위해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비행청소년이나 정신과 환자 등 문제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교정 및 치료적인 측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주장훈련을 실시한 후 측정된 변인들을 보면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들이 제작한 주장성의 정도를 재는 척도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심리적 변인으로서 불안, 공격성, 자기통제, 자아개념, 자존심, 열등감, 부적 자기평가 등이 사용되고 있다. 그밖에 대인관계 기술 혹은 사회적 기술에서의 향상이 주장훈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방법적인 프로그램면에서 보면 종합화되어 본보기(modeling), 피이드백, 사회적 강화, 사회적 학습, 과제를 주기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추세가 강하며 자기법간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간에 구성요소를 달리하여 훈련을 실시하기도 한다.

이러한 추세 및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행청소년들에게 종합적인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그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변인 중에서 불안과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Wolpe와 Lazarus(1966), Hedquist와 Weinhold(1970), Spence와 Marziller(1981), Booraem과 Flowers(1972), Percell, Berwick와 Beigel(1974) Ollendick와 Hersen(1979) 등은 주장훈련을 통해 신경증 환자나 매우 불안이 높은 사람들의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주장훈련의 이론적 근거를 고려해 볼 때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으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안 자체에 대한 개념에서 오는 문제이다. 불안에 대한 최근의 개념화는 일시적인 상태로서의 불안과 상당히 변하기 힘든 성격특성으로서의 불안을 구별하려는 중요성에 집중되어 있다(Singer & Singer, 1972).

D'Augelli(1974)를 지도자가 없는 간단한 감수성 훈련(sensitivity training)을 받은 집단에 있어 상태불안은 감소되었으나 특성불안은 감소하지 않았음을 보고하고 있는 데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정의를 고려해 볼 때 특성불안 주장훈련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Evans(1970), Evans와 Strangerland(1971), Staub(1970), Bandura(1973) 등은 주장훈련을 통해 공격성이 감소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Lee, Hallberg와 Hassard(1979)는 자기보고에 의한 공격성이 어느 정도 감소됨을 보고하였다. 또한 Rimm, Hill, Brown과

Stuart(1974)의 연구는 주장성의 향상에 대한 주장훈련의 효과를 뒷받침하여 주었으며, 주장훈련이 반사회적인 공격성으로 이끄는 분노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이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여 복잡하기 때문에 이를 좀더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공격성과 적의성을 구분하였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공격성의 감소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미흡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Buss(1961)는 공격성과 적의성의 결정요인들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며 적의성은 덜 의현적(overt)이므로 공격성의 경우에서 처럼 본보기나 강화의 효과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Buss(1961)의 말이 옳다면 주장훈련의 내용이 본보기나 강화를 구성요소로 하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내면화된 공격성이라고 볼 수 있는 적의성은 쉽게 주장훈련의 영향을 받지 않을지도 모른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가설을 검증하려고 한다.

가설 1: 주장훈련 집단은 주장훈련을 받은 후 토의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상태불안상에서 감소를 보일 것이다.

가설 2: 주장훈련 집단은 주장훈련을 받은 후 토의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특성불안상에서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가설 3: 주장훈련 집단은 주장훈련을 받은 후 토의 집단이 통제집단보다 공격성상에서 감소를 보일 것이다.

가설 4: 주장훈련 집단은 주장훈련을 받은 후 토의 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적의성상에서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1. 피험자

본 실험의 피험자는 전남 광주 소년원에 있는 원생 45명이었다. 피험자는 실험이 끝날 때까지 소년원에 체류가 가능한 자로 152명 중에서 무선으로 선발되었다. 피험자를 모두 남자이며, 국문해독이 가능한 자로 평균 나이는 18년 3개월(16년 3개월—19년 10개월)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정상 청소년과 비슷하다. 피험자는 주장훈련집단, 토의집단, 통제집단에 각각 15명씩 무선배정되어 실험에 참가하였으며, 세 집단의 비행별 인원 수는 아래 표와 같다(표 1).

표 1. 세 집단의 비행별 분류 (단위: 명)

비행	집단	주장훈련집단	토의집단	통제집단
강	간	2	5	4
강	도	6	2	1
절	도	5	5	9
폭	행	2	3	4
계		15	15	15

2. 실험도구

본 실험의 도구로는 주장훈련 프로그램과 불안검사와 공격성 검사가 사전-사후검사로 사용되었다.

(1) 주장훈련 프로그램

주장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한 프로그램은 변창진과 김성희(1980)가 Rakos와 Schroder(1980)의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만든 주장훈련 프로그램과 홍경자(1981)가 사용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비행청소년들에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은 주 1회 2시간씩 6주동안 실시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으며 구성내용은 강의, 역할연습, 행동시연, 피이드백, 본보기, 과제물 주기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2) 불안검사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의 측정은 Spielberger(1980)가 제작한 STAI(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사용하였다. STAI는 상태불안을 재는 20개의 문항(FormX-1)과 특성불안을 재는 20개의 문항(FormX-2)으로 4점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태불안에 10개, 특성불안에 7개의 도치문항이 있다.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의 점수는 각각 최고 80점에서 최저 20점으로 나타난다. STAI는 김정택(1978)이 이 검사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한 바 있으며 불안의 문제로 상담이나 지도를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불안을 측정할 때도 유용함이 밝혀졌다.

(3) 공격성 검사

Buss와 Durkee(1957)가 제작한 것으로 공격성과 적의성을 재는 7가지 소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원래 8가지 소척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죄의식(guilt)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공격성은 총 48문항으로 5가지 소척도로 나누어진다(소척도별 문항 수: 폭행=10, 간접적 공격성=9, 흥분성=11, 부정성=5, 언어적 공격성=13). 적의성은 총 18문항으로 2가지 소척도로 되어 있다(소척도별 문

량 수 : 원한=8, 의심=10). 모든 문항은 진위형으로 되어 있으며 15개의 도치문항이 있다.

한국에서는 본 연구자가 번안하여 4명의 심리학자(오수성, 이종목, 조금호, 홍경자)로부터 문항수정을 받았으며 광주 시내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N=50$)을 대상으로 2주간(1973. 4. 20~5. 4)에 걸친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r=.93$ 이었다.

3. 실험절차

(1) 설 계

본 연구의 실험은 주장훈련집단, 토의집단, 통제집단을 비교하여 실험처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동질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 의한 설계(Randomized control group pretest-posttest design)로 하였다(Issac & Michael, 1979).

(2) 결 차

본 연구의 피험자로 결정된 광주 소년원 원생 45명 전원에게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주장훈련집단은 주장훈련 프로그램에 따라 6주동안 훈련을 받았다. 주장훈련은 주 2시간씩 도합 6주 총 12시간으로 구성되었다. 토의집단은 2명의 교육학자와 2명의 심리학자가 상의하여 결정한 6개의 주제로 주장훈련 집단과 마찬가지로 주 2시간씩 6주 동안 진행하였으며, 통제집단은 아무런 처치도 받지 않았다. 사후검사는 실험이 끝

난 후 3집단 모두에게 실시하였다. 주장훈련집단 및 토의집단의 지도자는 두 사람으로 하였으며 주지도자(main leader)는 대학원에서 상담을 전공한 여자 상담자로 하였으며, 실험자는 보조지도자로 참가하였다.

각 집단의 실험기간 및 내용은 아래와 같다(표 2).

4. 자료처리

실험처치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전검사의 점수를 공변인(covariate variable)으로 삼고 공변량 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하였다. 공변량 분석의 가정인 전집의 동질성을 보장하기 위해 각 변인에 대한 회귀계수의 동질성(homogeneity of regression coefficients)에 대한 검증을 한 결과 $F(2, 39)=2.44, p>.10$ 로 회귀계수의 동질성이 확인되었다. 공변량 분석 결과 의미있는 효과가 나온 변인에 대해서는 교정 평균간의 개별 비교를 Finney(1946)가 제안한 t 검증에 의해 하였다.

IV. 결 과

상태불안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상태불안에 대한 3집단의 사전·사후검사에 있어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표 3).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하여 상태불안의 사전검사의

표 2. 세 집단별 실험기간 및 내용.

주	월일	집단	훈련집단	통제집단	월일	집단	토 의 집 단
1주	4.8	사전검사	사전검사	5.10	사전검사		
	4.8	주장훈련 1회		5.13	집단토의 1회	주제 : 이상적인 가족관계	
2주	4.15	주장훈련 2회		5.19	집단토의 2회	주제 : 바람직한 친구관계	
3주	4.22	주장훈련 3회		5.26	집단토의 3회	주제 : 바람직한 이성관계	
4주	4.29	주장훈련 4회		6.2	집단토의 4회	주제 : 이상적인 취미생활	
5주	5.6	주장훈련 5회		6.9	집단토의 5회	주제 : 과거의 나	
6주	5.12	주장훈련 6회		6.16	집단토의 6회	주제 : 미래의 나	
	5.14	사후검사		6.18	사후검사		

표 3. 상태불안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집단 요인	훈련집단($n=15$)		토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평 균	표준편차
사 전		51.87	9.57	50.73	11.42	49.73	10.06
사 후		41.53	8.11	44.27	8.66	48.07	5.80
감 소 량		10.34		6.46		1.66	

표 4. 상태불안의 공변량 분석표

변량원	교정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집단간	411.43	2	205.72	4.69*
집단내	1798.35	41	43.86	
전 체	2209.78	43		

$p < .05^*$

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변량 분석하였다. 표 4는 상태불안을 공변량 분석한 결과이다. 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결과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1)=4.69, p<.05$).

상태불안에 있어 3집단의 교정평균간의 사후 개별비교를 한 결과 주장훈련 집단과 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3.06, p<.01$). 그러나 주장훈련 집단과 토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41)=1.32, p>.10$). 토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1)=1.74, p>.05$).

따라서 주장훈련 집단이 토의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상태불안을 더 감소시킬 것이라는 가설 1은 부정되었다. 그러나 그림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주장훈련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상태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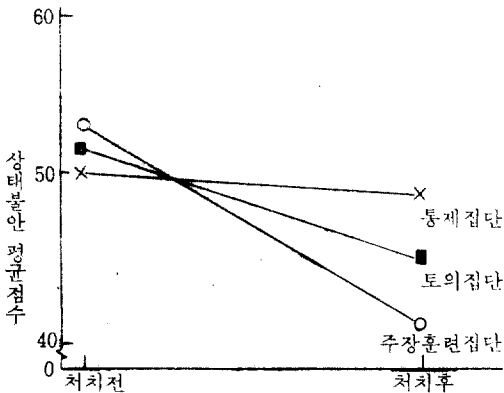


그림 1. 각 집단내 처치 전후의 상태불안 점수의 변화

표 6. 특성불안의 공변량 분석표

변량원	교정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집단간	413.38	2	206.69	3.93*
집단내	2153.89	41	52.53	
전 체	2567.27	43		

$p < .05^*$

있음을 알 수 있다.

특성불안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표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성불안에 있어 공변량 분석결과는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1)=3.93, p<.05$).

특성불안에 있어 3집단의 교정평균간의 개별 비교를 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1)=2.79, p<.01$).

그러나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1.04, p>.10$)과 토의집단—통제집단($t(41)=1.74, p>.05$)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주장훈련집단이 토의집단과 통제집단보다 특성불안상에서 감소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 2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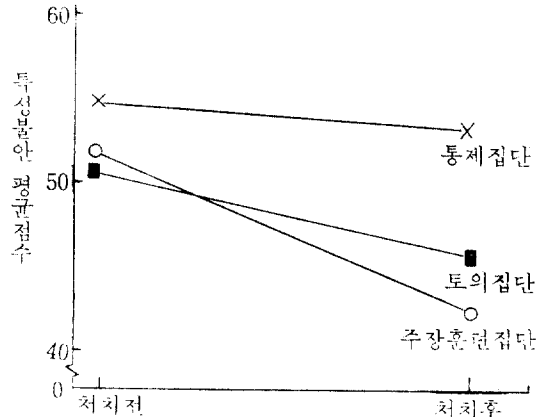


그림 2. 각 집단내 처치 전후의 특성불안 점수의 변화

표 5. 특성불안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구분	집단	훈련집단(n=15)		토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사 전		51.33	9.25	50.13	8.47	53.73	10.06
사 후		43.53	9.52	45.60	8.91	52.33	7.84
감 소 량		7.80		4.53		1.40	

표 7. 공격성의 사전-사후검사점수의 평균 및 표준편차.

변인	구분	요인	집단		통제집단(n=15)		통제집단(n=15)	
			평	준	평	준	평	준
폭행	사	전	7.40	1.82	6.80	2.26	7.20	2.29
	사	후	5.00	5.99	6.40	1.99	6.40	2.18
	감	소	2.40		0.40		0.80	
간접적 공격성	사	전	6.87	1.87	6.47	2.06	6.53	2.42
	사	후	5.27	2.46	6.60	1.70	6.47	2.16
	감	소	1.60		-0.13		0.06	
부정성	사	전	3.33	0.94	3.53	1.09	3.53	1.20
	사	후	3.47	1.41	3.73	0.77	3.73	1.06
	감	소	-0.06		-0.20		-0.20	
홍분성	사	전	7.13	1.86	6.80	1.97	7.60	2.70
	사	후	6.07	2.59	6.27	2.29	7.27	2.32
	감	소	1.06		0.43		0.33	
언어적 공격성	사	전	7.30	2.44	6.60	2.47	7.53	3.26
	사	후	6.27	2.21	7.53	2.58	7.07	2.35
	감	소	1.03		-1.07		0.46	
계	사	전	32.07	6.75	30.20	7.92	33.07	10.64
	사	후	26.07	9.69	30.53	6.52	30.93	8.53
	감	소	6.0		-0.33		2.14	

* 각 변인의 최고 점수 : 폭행=10, 간접적 공격성 =9, 홍분성 =11, 부정성 =5, 언어적 공격성 =13

공정되었다. 그러나 그림 2에 나타난 것처럼 주장훈련 집단은 통제집단보다는 특성불안의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

공격성에 미치는 주장훈련의 효과

공격성에 대한 3집단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가설 3를 검증하기 위하여 공격성의 전체 점수를 공변량 분석하였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변량 분석결과는 세 집단간에 공격성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1)=5.22, p<.01$).

공격성 전체 점수의 교정 평균간의 t 검증을 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t(41)=2.16, p<.05$) 및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3.16, p<.1$)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1)=.99, p>.20$).

이상의 결과는 가설 3을 지지해 주며, 그림 3에 나타난 것처럼 토의집단은 공격성의 감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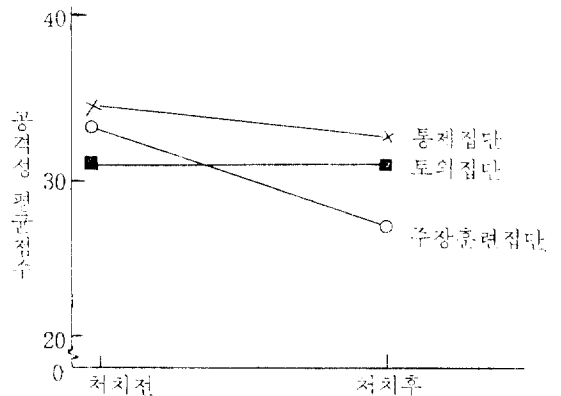


그림 3. 각 집단내 처치 전후의 공격성 점수의 변화

공격성의 하부 변인에 있어 공변량 분석의 결과는 폭행과 간접적 공격성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폭행 : $F(2,41)=5.31, p<.01$; 간접적 공격성 : $F(2,41)$

표 8. 공격성의 공변량 분석표.

변인	요인	집단		교정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집단간	집단내				
폭행		집단간	30.78	2	15.39	5.31**	
		집단내	118.78	41	2.90		
		전체	149.56	43			
간접적 공격성		집단간	22.56	2	11.28	3.73*	
		집단내	123.81	41	3.52		
		전체	146.37	43			
부정성		집단간	0.16	2	0.08	0.10	
		집단내	32.50	41	0.79		
		전체	32.66	43			
흥분성		집단간	5.26	2	2.63	0.84	
		집단내	128.86	41	3.14		
		전체	134.12	43			
언어적 공격성		집단간	20.49	2	10.25	2.32	
		집단내	159.08	41	4.42		
		전체	179.57	43			
계		집단간	275.44	2	137.22	5.22**	
		집단내	1081.82	41	26.39		
		전체	1357.26	43			

$p < .05^*$, $p < .01^{**}$

표 9. 적의성의 사전-사후검사 점수의 평균치 및 표준편차

변인	구분	집단	훈련집단(n=15)		토의집단(n=15)		통제집단(n=15)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원한	사전		4.67	1.82	4.07	1.48	4.00	2.10
	사후		2.73	1.61	2.87	1.50	3.67	2.02
	감소량		1.94		1.20		0.33	
의심	사전		4.60	2.78	4.07	1.65	3.87	2.87
	사후		2.13	1.89	3.73	2.21	3.67	2.41
	감소량		2.47		0.34		0.20	
계	사전		9.07	4.30	8.13	2.50	7.87	4.65
	사후		4.87	2.42	6.60	2.87	7.33	4.16
	감소량		4.20		1.53		0.54	

* 각 변인의 최고 점수: 원한=8, 의심=10

표 10. 적의성의 공변량 분석표.

변인	요인	변량원	교정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원	한	집 단 간	9.73	2	4.87	1.73
		집 단 내	115.11	41	2.81	
		전 체	124.84	43		
의	심	집 단 간	36.53	2	18.27	6.01**
		집 단 내	124.48	41	3.04	
		전 체	161.01	43		
계		집 단 간	71.66	2	35.83	4.58*
		집 단 내	320.17	41	7.82	
		전 체	392.45	43		

$p < .05^*$, $p < .01^{**}$

=3.73, $p < .05$), 그러나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에서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

폭행에 있어 3집단의 교정 평균간의 개별 비교를 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t(41)=2.53$, $p < .05$) 및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3.08$, $p < .01$)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1)=0.55$, $p < .20$).

간접적 공격성에 있어 3집단의 교정 평균간의 개별 비교를 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2.47$, $p < .05$) 및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t(41)=2.19$, $p < .05$)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1)=0.44$, $p > .20$).

적의성에 있어 3집단의 사전—사후점사 점수의 평균 점수와 표준편차는 표 9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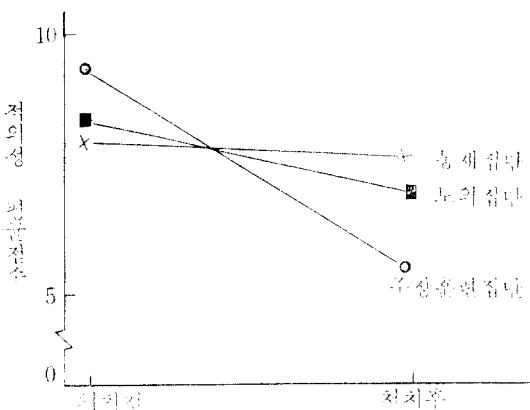


그림 4. 각 집단내 처치 전후의 적의성 점수의 변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하여 적의성의 전체 점수를 공변량 분석하였다. 표 10에 나타난 것처럼 적의성의 공변량 분석결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F(2,41)=4.58$, $p < .05$).

적의성 전체 점수의 교정 평균간의 개별 비교를 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2.11$, $p < .05$) 및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t(41)=2.90$, $p < .01$)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41)=.80$, $p > .20$).

이상의 결과들은 가설 4를 지지하지 않으므로 가설 4는 부정되었다. 그림 4에 나타난 것처럼 주장훈련 집단은 토의집단이나 통제집단보다 적의성이 많이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적의성의 하부 변인에 있어 공변량 분석결과는 의심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F(2,41)=4.58$, $p < .05$). 의심에 있어 3집단간의 개별 비교를 하기 위해 t검정한 결과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t(41)=.062$, $p < .01$) 및 주장훈련집단—통제집단($t(41)=3.06$, $p < .01$)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토의집단—통제집단간에는 차이가 없었다($t(41)=0.09$, $p > .20$).

V. 결과해석 및 논의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행동주의적 집단상담의 한 방법인 주장훈련이 비행청소년들의 공격성과 적의성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지적해 준다.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에 있어 비행청소년들의 사전 점사의 평균 점수는 정상 청소년들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김정택, 1978; 오점광 1978).

상태불안에 있어 주장훈련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성불안에 있어서도 주장훈련 집단은 통제집단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주장훈련집단-토의집단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또한 토의집단-통제집단 간에도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의 감소에 있어 주장훈련 집단이 통제집단보다는 효과가 있지만 토의집단보다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토의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어느 정도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다.

주장훈련집단이 통제집단보다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의미있게 감소시킨 본 연구의 결과는 토의집단없이 상태불안과 특성불안을 구별하지 않고 불안의 감소를 보고한 연구들과 일치하며, 상호억제의 원리에 의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주장한 Wolpe(1958)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공격성에 있어서 주장훈련집단은 토의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의미있는 감소를 보여주었으며, 토의집단은 통제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이런 결과는 상태불안 및 특성불안 감소에 있어서 주장훈련집단과 토의집단 사이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는 결과와 비교해 볼 때 토의집단은 공격성의 감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격성의 하부 변인들 중에서는 폭행과 간접적 공격성만이 토의집단과 통제집단에서보다 주장훈련집단에서 의미있는 감소가 있었다. 하부 변인 중 부정성, 흥분성, 언어적 공격성은 주장훈련을 받은 후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적의성에 있어 주장훈련집단은 토의집단과 통제집단보다 의미있는 감소를 나타냈으며 토의집단과 통제집단 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공격성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의집단이 적의성을 감소시키는 데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해 준다. 주장훈련을 통한 적의성의 감소는 적의성이 의현적이며, 태도적인 공격성이기 때문에 본보기나 강화를 통한 행동주의적 방법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Buss(1961)의 보고와 상반된 결과이다. 적의성의 하부 변인 중 의심은 의미있게 변화했으나 원한은 감소되지 않았다.

공격성 및 적의성의 감소는 주장훈련을 통해 주장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격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Evans(1970), Staub(1971), Bandura(1973) 등의 연구를 지지해 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주장훈련은 비행청소년들의 불안을 감소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특히 공격성 및 적의성의 하부 변인 중 폭행, 간접적 공격성, 의심울 감소시키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국내에서 지금까지 비행청소년들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이 비행의 원인을 파악하는 데 그친데 비하여 처음으로 행동주의적 집단상담의 한 방법인 주장훈련을 실시하여 비행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 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해 보았다는 점이다. 연구결과 나타난 주장훈련을 통한 공격성의 감소는 소년원에서 주장훈련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비행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해 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시사점을 보면, 평정방법에 있어 자기보고(self-report)에 의해서만 불안과 공격성을 측정하였다는 점이다. Lee, Hallberg와 Hassard(1979)는 주장훈련을 받은 후 세영역, 즉 위협이나 욕설, 분노하여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 남과 싸우거나 뛰어서 때리는 것 등에서 평가하였는데 타인의 판단에 의해 평가된 공격성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기보고에 의한 공격성의 정도는 어느 정도 감소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의 피험자로 실험에 참가한 비행청소년들은 모두 남성이기 때문에 결과의 적용은 남성에 한정되며 여성에 대해서는 따로 연구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또한 피험자들의 재범율, 비행의 종류 등을 구분하지 않았는데, 연구의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요인들을 구분하면 재미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리라 본다.

주장훈련 프로그램의 진행절차에 있어서도 본 연구에서는 녹음테이프만 사용하였는데 비디오테이프(video tape)를 사용하면 본보기에 미치는 효과에 더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본다.

차후의 연구에서는 주장훈련 외에 다른 집단상담을 함께 실시함으로써 집단상담 방법간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조사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주장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비교 및 기법이나 방법론적인 절차등을 고려하여 심리적 변인에 따라 다른 결과를 줄 수 있는 특성적인 주장훈련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본다.

참 고 문 헌

- 강상철. 청소년 지도의 대책방안, 충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9, 제 7집, 43-61.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청소년 백서, 1982, 357-363.
- 김봉소·이희도·김경진. 비행소년의 자아구조와 가정환경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4, 제 7권 제 1호, 1-12.
- 김성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장훈련의 효과.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2, 제15권 제 2호, 1-29.
- 김용선. 비행소년의 비행요인 분석과 그 선도책. 전남대학교, 학생상담소, 1966, 제 1집, 65-75.
- 김정택. 특성불안과 사회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1978.
- 박병기. 소년범죄의 심리·사회적 배경과 처방, 군산교육대학, 학생생활연구소, 1975, 제 4호 35-39.
- 변창진·김성희. 주장훈련 프로그램. 경북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0, 제13권 제 1호, 51-85.
- 오점량. 청소년의 비행과 그 대책.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78, 제14집, 67-77.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 박영사, 1982.
- 이현립. Wolpe의 상호제지에 의한 심리치료의 개설편 고찰. 영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3, 제14권 제 1호, 27-36.
- 최응·유재만·홍경자. 자기 발표력 향상을 위한 집단상담.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0, 제12집, 9-26.
- 홍경자. 한국대학생에 있어서 주장훈련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1981, 제13집, 97-116.
- Alberti, R.E., & Emmons, M.L. *Your perfect right: A guide to assertive behavior*. San Luis Obispo: Impact, 1970.
- Alberti, R.E. Comments on differentiating assertion and aggression: Some behavioral guidelines. *Behavior Therapy*, 1977, 8, 353-354.
- Bandura, A.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New Jersey: Prentice-Hall, 1973.
- Booraem, C.D., & Flowers, J.V. Reduction of anxiety and personal space as a function of assertive training with severely disturbed neuropsychiatric inpatients, *Psychological reports*, 1972, 30, 923-929.
- Buss, A.H., & Durkee, A. An inventory for assessing different kinds of hostilit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57, 21, 343-349.
- Buss, A.H. *The Psychology of Aggression*. New York: John Wiley, 1961.
- D'Augelli, A.R. Changes in self-reported anxiety during a small group experie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4, 21, 202-205.
- Edmunds, G., & Kendrick, C.C. *The measurement of human aggressiveness*. Chichester: Ellis Horwood Limited, 1980.
- Evans, D.R. Specific aggression, arousal, and reciprocal inhibition therapy. *Western Psychologist*, 1970, 1, 125-130.
- Evans, D.R., & Strangerland, M. Development of the reaction inventory to measure anger. *Psychological Reports*, 1971, 29, 412-414.
- Gallassi, J.P., DeLeo, J.S., Gallassi, M.D., & Bastien, S. The College self-expression scale: a measure of assertiveness. *Behavior Therapy*, 1974, 5, 165-171.
- Gallassi, J.P., Gallassi, M.M., & Litz, C. Assertive training in groups using video feedback,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4, 21, 390-394.
- Goldstein, A.P. *Psychological skill training*. New York: Pergamon, 1981.
- Hedquist, J.J., & Weinhold, B.K. Behavioral group counseling with socially anxious and unassertive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0, 17, 237-242.
- Hersen, M., & Bellack, A.S. Social skills training for chronic psychiatric patients: Rationale, research findings, and future directions. *Comprehensive Psychiatry*, 1976, 17, 559-580.
- Hallandsworth, JR. J.G. Differentiating assertion and aggression: Some behavioral guidelines. *Behavior Therapy*, 1977, 8, 347-352.
- Hong, K.J. An exploratory study for the effect

- ctiveness of group assertive training with unassertive Korean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Mississippi, 1982.
- Lazarus, A.A. *Behavior therapy and beyond*. New York: McGraw-Hill, 1971.
- Lee, D.Y. Evaluation of a group counseling program designed to enhance social adjustment of mentally retarded adul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7, 24, 318-323.
- Lee, D.Y., Hallberg, E.T., & Hassard, H.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aggressive behavior of adolesc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9, 26, 459-461.
- Moore, K.B., & Smith, J.L. *Improving self-confidence*. Counseling and Testing Center, University of Georgia, 1982.
- Ollendick, T.H., & Elliott, W.R. Locus of control as related to effectiveness in a behavior modification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Unpublished manuscript. Indiana State University, Terre Haute, In, 1978.
- Ollendick, T.H., & Hersen, M. Social skill training for juvenile delinquents.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1979, 17, 547-554.
- Percell, L.P., Rerwick, P.T., & Beigel, A.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self-concept anxiet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974, 31, 502-504.
- Pavlov, I.P. *Conditioned reflexes*. New York: Dover publications, 1950. (an unaltered republication of the translation first in 1927 by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 A.R., & Schroeder, H.E. Research issues in assertive training. *Psychological Bulletin*, 1976, 83, 1081-1096.
- Rimm, D.C., Hill, G.A., Brown, N.N., & Stuart, J.E. Group assertive training in treatment of expression of in appropriate anger. *Psychological Reports*, 1974, 34, 791-798.
- Sarason, I.G. Intercorrelation among measures of hostility,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961, 17, 192-195.
- Sarason, I.G., & Ganger, V.J. Modeling and group discussion in the rehabilit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3, 20, 442-449.
- Salter, A. *Conditioned reflex therapy*. New York: Farrar Straus & Giroux, 1949: Capricorn Books Edition, 1961.
- Spielberger, C.P., Gorsuch, R.L., & Lushene, R.E. *Manual for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Palo Alto, Californin: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1970.
- Spielberger, C.D. Anxiety: state-trait process. In C.D. Spielberger & I.G. Sarason(Eds.), *Stress and anxiety*. Washington: Hemisphere/Wiley, 1975.
- Staub, E. The learning and unlearning of aggression. In J.L. Singer(Ed.), *The Control of aggression and violence*, New York: Academic Press, 1971, 93-124.
- Wolpe, J.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8.
- Wolpe, J.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New York: Pergamon Press, 1973, 80-94.
- Woodpentz, M.A. Assertion training and trainer effects on unassertive and aggressive adolescents. *Journal of Conseling Psychology*, 1980, 27, 76-83.

The Effects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Kyung-Ja Hong, An-Young Rh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 of assertive training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anxiety in juvenile delinquents.

Subjects were 45 male juvenile delinquents, with an age range from 16 to 19 years. They were randomly assigned to the experimental($n=15$), discussion($n=15$), and control($n=15$) groups, and assessed before and after treatment

on self reported aggression and anxiety scales.

The Spielberger ' (1970)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anxiety, and the Buss-Durkee ' (1957) Aggression and Hostility Inventory was used to measure aggression of the subjects.

The experimental group was given an assertive training program which consisted of instruction, role playing or behavior rehearsal, feedback, modeling, and homework assignments. The group was trained by two leaders for 6 weeks. The discussion group had spent 6 weeks dealing with 6 different topics led by the leaders. The control group had no treatment during the period. The three groups were compared using the pretest scores as the covariate.

The results of analyses of covariance for different scores and t tests for adjusted means indicated that experimental group was more

effective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hostility than the discussion and control groups. The discussion group seemed, although statistically nonsignificant, to have somewhat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state anxiety and trait anxiety, but no significant effect on the reduction of aggression and hostility. It was found in the further analysis that assault, indirect aggression among the subscales of aggression and suspicion among the subscales of hostility were reduced significantly, but negativism, irritability, verbal aggression and resentment were not reduced significantly.

In discussion it was indicated that behavioral measure is needed, in addition to those used in the present study, and a study on the relative effectiveness of program components is recommended in future researches.